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경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동물원의 엄마 호랑이가 육아를 포기해 사육원의 극진한 간호가 필요했습니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시다만 인간세계도 비슷한 사건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사회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 “아이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연간 4 만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세요

당신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잘 기르고 있습니까?

아이는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부모는 그 때문에 잘 길러야 한다는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아동상담소에는 연간 4 만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대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폭행을 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를 시키거나 식사를 주지 않거나 장시간 방치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입니다

학대의 정도가 심하면 아이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분리해 병원이나 수양부모·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이를 일시 보호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이타마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모임 **048-835-2699**

사이타마 육아불안 110 번 **048-881-0922**

전문가분들이 상담에 응해 줍니다. 또, 아이가 이상하게 어른의 기분을 거스르거나 조그만 행동에도 움찔하거나 부모가 가까이하려고 하면 피하거나 표정이 변하지 않거나 특별한 병도 없는데 밥을 먹지 않을 때도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외로워서 엄마나 아버지가 더 귀여워해 주었으면 하는 거겠지요. 꼭 껴안아 주세요. 또, 본인이 일본어를 모른다고 아이의 학교행사에 참가하지 않던가 더러운 옷을 입히든가 아침을 주지 않는다든가 목욕시켜 주지 않는 것도 큰 학대입니다.

본인이 부모인 이상 아이가 있다는 것을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소중하게 길러 주십시오. (글·이시이 나나에)



www.ficec.jp/foreign/

● 「인포메이션후지미노」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상담센터사이타마」를 알고 계십니까?

사이타마현에는 현재 12 만인을 넘는 외국적시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생활에 가지각색의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외국적시민에게 든든한 상담상대가 되어 주는 조직이 작년 8월에 탄생했습니다.

「외국인지원상담센터 사이타마」입니다. 이 센터는 사이타마현과 동경입국관리국 그리고 사회보험노동사회가 손을 잡아 만든 것입니다.

이 센터의 특징은 국제교류협회가 실시해 온 전화상담의 「헬프데스크」와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합니다. 전화상담에서 직접 상담자와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화상담인 「헬프데스크」는 주 5일 8개국어로 생활 전반에 대해 상담에 응했습니다만 좀더 상담하고 싶다는 상담자로부터의 희망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지원상담센터」는 월,수,금으로 주 3 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친밀한 상담과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처에 상담자가 있으면 한 번 상담해 보시는 것은 어떨른지요.

외국인지원상담센터사이타마 ☎048-833-3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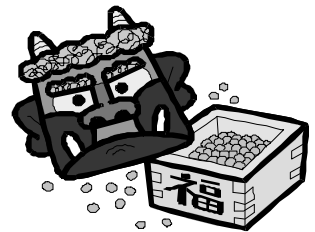
외국인헬프데스크 ☎048-835-2423

시리즈② 「외국적시민의 눈으로 본 일본인의 신기함」 “절분”

이번 달은 「절분(세쯔분)」에 대해서입니다. 절분이란 각 계절이 시작되는 전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계절을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매년 2월 3일을 특정 짓는 경우가 많으며 감기 등을 쫓아내기 위해 옛날부터 행해져 온 일본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절분의 시기가 되면 일본에서는 많은 슈퍼 등에서 절분에 연관된 코너가 설치되어 거기에서는 복콩(후쿠마메)이라고 불리우는 붉은 콩을 팔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귀신역할을 하고 그 귀신에게 아이들이 콩을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콩을 뿌릴 때 「귀신은 바깥, 복은 안으로」라며 구령을 외치는 것으로 일년의 무병 무사함을 바랍니다. 또 복콩을 자신의 연령의 수보다 1알갱이 많이 먹으면 몸이 건강해 지고 감기도 들지 않는다고 하는 습관이 있어 콩을 뿌리고 난 다음에는 가족과 차를 마시면서 콩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어 긴기지방 등에서는 에호마키라고 하는 김밥종류를 매년 다른 방향을 보며 아무말 하지 않고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사히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일본류의 무병무사함을 기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글/간다 아유미



작년 12월 17일, 일본전통행사『소바우치』를 일본어를 지도하시는 토츠카씨의 지도로 실시했습니다. 만든 소바는 “토시고시소바”라고 해 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맛있었어요!!

소바를 만들어 봤습니다

●임산부 검진이나 출산에 드는 비용 부담이 가벼워 집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출산이나 임산부 검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관심이 있는 분은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의 외국인 상담은

☎ 049-269-6450

www.ficec.jp/living/

● 6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